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서 생생한 생물 테마 체험

'에코 튜브' 생태교육장 임시 개관...9월까지 어류실 등 3곳 무료 관람 단계별 눈높이 전문해설 제공...시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 통해 접수

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 생물관찰시설이 문을 열었다.

남원시는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생물테마체험시설인 '에코 튜브(ECO CUBE)'를 개관했다고 11일 밝혔다.

생물테마체험시설 에코 튜브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새로이 선보이는 교육, 체험 기관으로 지리산의 우수한 생태관광자원 활성화와 상생하는 지역 발전 도모 등을 목적으로 건립됐다.

오는 9월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 개관은 4개의 전시실 중 어류실, 특수동물실, 곤충실 3개의 전시실을 먼저 선보이며 담수복어, 알다브라옥지거북, 왕사슴벌레 등 대형생물의 특이한 모습과 재미있는 생태를 가진 다양한 동물들을 직접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로, 관람 시 사육사가 진행하는 전문 생태해설이 포함돼 있어 유아나 초등학교생뿐만 아

니라 성인들까지 눈높이별 해설을 받을 수 있다.

남원시는 정식 개관 전까지 임시 개관에 무료로 운영할 계획으로, 임시 개관 기간에는 월요일 휴관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0시, 오후1시, 오후 3시 1일 3회 운영되며, 1회 최대 45명이 참여 가능하다.

정식 개관 전까지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남원시 통합예약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또 예약 접수 정원 미달 분량은 당일 현장 발권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 개관을 통해 백두대간을 방문해주시는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함과 동시에 운영인력의 숙련도를 높여 질 높은 전시, 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을 찾은 아이들이 전시관의 수중생물을 관찰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정읍 명소 8곳 방문하면 특산품 선물

20일~11월까지 4개 권역 26개소 모바일 스탬프투어 운영

"정읍 9경, 신나는 구경하세요."

정읍시가 유명 관광지인 물론 숨은 관광지를 홍보하고 '정읍시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를 활성화하고자 오는 20일부터 11월까지 '정읍시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

운영장소는 내장산레저휴양권 7개소, 동학농민혁명문화회관 8개소, 정읍시문화원 5개소, 태산선비문화관 6개소로 총 4개 권역 26개소이다.

스탬프투어 참여를 위해서는 먼저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Play store)나 애플 앱스토어(APP Store)에서 '정읍시 전자지도'를 받으

면 된다. 이후 해당 관광지를 방문하면 GPS인식을 통해 자동으로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다.

참여자가 8개 이상의 스탬프를 획득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정읍시는 스탬프를 획득한 다음 달 초 지역 특산품인 귀리를 우편 발송해 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후기 인증자에게는 추가로 정읍시 관광엽서까지 증정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역사 유적이 가득한 정읍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고 휴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등산길 안전한 고창 방장산으로 오세요

종합안내판·이정표 등 정비

고창군이 '호남의 3대 명산' 방장산의 등산로 정비사업과 숲길 전망대 조성사업을 마무리했다.

고창군은 등산로에 기존 노후화된 종합안내판과 이정표 등을 정비하고, 훼손된 등의자 등 편의 시설 교체, 급경사로 위험한 양고살재 등 5개소에 안전로프 난간과 야자매트를 설치했다.

등산객을 위협하는 고사목 등을 제거하는 등 방문자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방장산을 등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장산 역사봉(해발 636m)에 숲길 전망대(팔각정·사진)와 고성능 망원경을 설치해 역사봉을 방문하는 등산객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쉼터 제공과 고창군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물할 수 있게 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방문자들에게 더 나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 옷칠목공예' 파워유튜브 타고 세계로

목공예 체험 홍보영상 제작 한국어·영어 자막...3주만에 1만뷰

남원 옷칠목공예가 파워유튜브를 타고 세계로 퍼졌다.

남원시는 구독자 30만의 파워유튜버를 활용해 전통 옷칠목공예 홍보영상을 제작해 방송했다고 밝혔다.

한국어와 영어자막이 함께 노출되는 홍보영상은 목공예 체험을 통해 남원 옷칠목공예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남원의 전통문화를 소재로 K-문화까지 알리는 내용이다.

유튜브 영상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한국문화 체험했다! 남원시가 짱 좋음!'은 게시된 지 3주 만에 9600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파워유튜버 단과 조엘(왼쪽)이 남원에서 옷칠목공예에 체험을 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시는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전통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목기, 식기, 부채 등을 이용한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고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

그지단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남원의 소중한 전통산업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에도 온라인 매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널리 홍보해 전통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소외 어르신 맞춤형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방문 안전 확인·말벗 등...이달까지 신청

정읍시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과 노후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추진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3주간이다.

서비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등 유사 중복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집에 생활지원사가 방문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체·사회적으로 다소 건강한 어르신에게는 월 16시간 미만(주 1회 방문 수준)의 안전확인, 말벗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